

# 다도해의 보석 섬

⑨ 신안군 증도면 화도



## 주민 먹여살린 갯벌, 생생한 '생태관광' 寶庫로

화도로 이어지는 1.2km 노둑길은 이 섬의 관광 명소다. 물때에 맞춰 떠오르기도 하고 가라앉기도 하는 노둑길 양옆으로는 갯벌이 하얗게 펼쳐지고 쾅쾅어, 칠게와 농게 등이 기어다닌다.

1.2km 갯벌 노둑길 증도 연결  
슬로 시티 유명세...발길 늘어



7월말 8월 초는 어디나 막힌다. 신안군 화도(花島)로 가는 길도 그랬다.

'시골벽적인 관광지'로 변해버린 증도를 지나쳐야 하는 탓에, 그나마 다리가 놓이고 철부선(鐵浮船)이 사라져 더이상 배타고 들어가는 불편함이 사라져서 더욱 그랬다. 증도 대교를 건너자마자 자리한 증도 특산 농수산 판매점은 이른 아침부터 천일염을 찾는 관광객들로 북적였고 면사무소도 인파로 북적대는 어느 피서지와 비슷했다.

자리에 앉아 여유롭게 설명하기도 힘든 직원들에게 도회지 못지 않은 '번잡함'이 물어있는 증도 관광지도 한 장을 건네받고 21가구가 산다는 증도의 소개를 대충 흘러들은 뒤 황급히 노두(路頭)길을 건넜다. 개미떼처럼 바글바글한 칠게, 농게가 드넓은 갯벌에 참호를 뚫고 쾅쾅어가 진흙에 뒹굴며 튀어오르는 소리를 들으며 노둑길(1230m)을 건너서야 비로소 섬에 들어온 듯했다.

화도는 신안군 증도면 대초리(大草里)에 있는 조그만 섬(0.15km)으로, '시계 바늘이 천천히 돈다'거나 '도심을 탈출한 해방감과 평화로움을 느끼게 해준다'는 맛을 느낄 수 있는 섬이다. 최근에는 증도가 유명세를 타면서 어미 섬이라는 증도로 이어지는 노둑길을 따라 화도를 찾는 이도 덩달아 많아지고 있다.

화도에서 20년 넘게 살았다는 설광춘(56)·최미선(52)씨 부부는 "바닷물이 들어차면 섬 밖에서 보는 형상이 꽃봉우리 같이 아름답다고 해서 화도라 불렀다"고 했다. 또 "옥광상제의 딸 선화공주가 귀양와서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섬은 꽃이 섬에 가득 할 정도로 많았다"면서 유래를

들려줬다.

현재 섬에서는 선화공주가 섬은 해당화를 찾아가 쉽지 않다. 당노에 풍다는 말이 떠돌면서 육지에서 찾아와 무더기로 캐가는 바람에 남아나지 않았다고 한다.

물때에 맞춰 솟아오르거나 잠기는 폭 3m인 노둑길도 명소다.

노둑길 양 옆으로 쾅쾅어와 게들이 구멍을 뚫고 해질 녘이면 햇빛에 반사된 갯벌이 반짝인다. 그 사이로 김 양식을 위해 섬 연안에 가지런히 꽂아놓은 장대들이 어울리면서 장관을 연출한다. 물 나간 개펄에 덩그러니 었힌 고깃배는 엉망인 수채화 속 풍경이다.

53명 주민들에게 노둑길은 또 다른 의미다. 역적스러운 사연과 섬의 역사를 고스란히 담고 있다. 지금은 시멘트로 덮였지만 40년 전만 해도 갯벌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마을 주민들은 본섬인 증도로 가기 위해 물이 빠지는 시간에 맞춰 빨발을 바닷가랑이를 건너붙인 채 건너 다녀야 했다.

화도에서 나고 자란, 토박이 안미영(여·54)씨는 "푹푹 빠지는 갯벌을 지나다닐 수 있을 정도로 커야 초등학교를 갈 수 있어 주민들 대부분 자녀가 9살때 화도를 보냈다"고 말했다. 한 번도 넘어지지 않고 건너간 날은 그나마 운수 참 좋은 날. 그래도 머리와 얼굴에 뽀얀 물이 묻고 화교에 들어서는 날이 더 많았다. 화교에 가면 '빨 물은 아이들'이라는 놀림을 받았고 물 빠지는 시간에 맞춰 수업 도중에 화교를 나서거나 새벽녘에 집을 나서기도 했다.

그로부터 10년 뒤 주민들은 스스로 징검다리를 만들

었다.

마을 주민들이 썰물 때 작대기를 꽂아 길이 나는 곳을 표시했고 밀물 때 배에 돌을 싣고 가 빠트렸다. 그리고 다시 물이 빠지면 평탄하게 골라 만든 징검 다리를 굳어서 시멘트 포장으로 바꿔 주기까지는 10년이 넘게 흘렀고 이 길을 높이기까지도 3년 가량이 걸렸다. 시멘트 포장된 길을 따라 전깃불이 들어왔고 수도물을 사용하는 게 가능해졌다.

안씨는 "물로 나오기 위해 한 손에 아이 손을 꼭 잡고 다른 한 손에 기저귀가방을 든 채로 막내를 업고 징검다리를 건너면 겨울에도 땀으로 흠뻑 젖을 때가 많다"고 말했다.

물이 빠지고 바닷길이 열리면 드러나는 갯벌(12km)도 관광객들에게는 온갖 체험거리를 제공하는 천혜의 관광지인 반면, 주민들에게는 생계 터전이다. 도립공원으로 지정된, 섬을 세겹네걸 둘러싼 넓은 청정 갯벌을 따라 게, 낙지를 잡아 자식들을 키웠고 물이 차면 김 양식을 해 벌어들인 돈으로 물으로 역척스럽게 내보냈다. 여는 섬과 마찬가지로 주민들은 자녀가 중학생만 되면 두집 세집 살림의 이산가족이 되는 것을 감수한다.

이 섬에는 나이든 주민들이 많아지면서 농지(42ha)에서 경작하는 주민 수는 적어지고 있다. 젊은 주민들은 600~800척에 이르는 김양식에 매달리는 경우도 많다.

이 섬 주민들은 최근 어업과 농업 외에 섬을 둘러싼 갯벌과 노두를 활용한 관광 자원 발굴에 눈을 돌리고 있다. 천일염 등 증도의 유명세도 한껏 활용하면서 노둑길에 물이 차면 되살아나는 화도의 고즈넉함을 더해



화도에 건립된 전통 한옥. 지난 5월부터 숙박 시설로 활용되면서 관광객들의 인기가 높다.

관광객을 끌어들이는데 주력하고 있다.

이 때문인지 지난 5월 전남도 지원으로 시작된 전통 한옥 민박 사업은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이질 않는다. 섬을 돌아보는 탐방로도 천천히 만들어지고 있다. 주민이 살고 있는 모습을 유지하면서 조금씩 바뀌어지면 화려하지는 않지만 때를 놓치지 않는 섬을 소개하는데 훨씬 도움이 될 것이라는 주민들도 많다.

설광춘씨는 "화도는 증도와 연결돼 있지만 증도와 다른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섬"이라며 "섬 고유의 차별화된 아름다움을 가꿔 나간다면 발길이 이어지는 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사진=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Dinner Show 송대관**

2010. 8. 20(금) 19:00

김대중컨벤션센터 4층 컨벤션 홀

₩150,000 (IVA 포함)

배우 송대관 - 대표연출 : 송대관 / 제작실 : 송대관 (주최: 송대관 / 후원: 송대관 / 후원: 송대관)

**'좋은 보청기를 쓰십시오'**

• 하루 1시간만 • 간편하다 • 가격이 저렴합니다

**국제보청기**

본점 (061) 227-9940

송정점 (061) 227-9970

손천점 (061) 752-9940

해포점 (061) 262-9200

익산점 (061) 851-2422